

## P-17 골다공증 환자의 치주조직 파괴상태

박성표\*, 김영준, 박병주

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치주질환과 골다공증의 관계는 국소적인 치조골 흡수와 전신적인 골량감소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상관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. 이에 본 연구는 골다공증과 치주질환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전남대학교 병원 내과에 통원 치료중인 골다공증 환자 28명과 전남대학교 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동일 연령대의 치주질환을 갖고 있는 대조군 20명을 선택하여 dual energy X-ray absorptiometry(DEXA) 법에 의한 요추 골밀도 검사 및 구강내 치주조직 상태를 검사하였다.

전신적 소견에서 신장과 체중 및 비만도는 골다공증군과 대조군에서 거의 비슷하였으며 혈청내 hemoglobin 및 alkaline phosphatase 수치도 두 군 모두 정상범위였다. 골다공증군의 골밀도는 0.84g/cm<sup>2</sup>로 청년기 표준치의 70.9%, 동년대 표준치의 82.3%였고 대조군의 골밀도는 0.99g/cm<sup>2</sup>로 청년기 표준치의 94.8%, 동년대 표준치의 101%로 골밀도 수치는 골다공증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( $p < 0.05$ ).

구강내 잔존된 치아수는 골다공증군은 23.6개, 대조군은 23.1개였다. 치주낭 깊이 및 부착수준은 골다공증군은 3.18mm, 3.43mm 였으며 대조군은 2.85mm, 3.11mm로 골다공증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( $p < 0.05$ ). 치주낭 탐침시 출혈 비율은 골다공증군에서 41%, 대조군에서 37%로 두 군간에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.

이상의 연구 결과로 볼 때 골다공증군에서 치주조직 파괴 정도를 표시하는 치주낭 깊이와 부착상실이 더 심하였으며 따라서 심한 골다공증환자에서 치주질환이 진행되어 있음을 시사하였다.